신식조각가 김복진의 불상작품 보기

강 순 형(姜舜馨)
(문화재관리국 유형문화재2과, 학예연구관)

차 례

Ⅰ. 드는 글
Ⅱ. 작품활동
Ⅲ. 불상작품
Ⅳ. 불상작품
1. 틀(形式)
2. 바탕(樣式)
Ⅴ. 간추림

Ⅰ. 드는 글

정관 김복진(井觀 金復鎭, 1901～1940, 作業期 : 1920(20살)～1940(40살)). 그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근대 또는 현대 나아가 「양풍(洋風) 조각가」로 자리매김되어 오르내리고 있는 이이다. 곧 우리 나라 「신식조각가」로 첫째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관은 신식공부를 한 이답게 신극단 토월회(土月會)를 함께 세웠던(1922. 5) 연극가이자, 문예 운동모임인 파스큐라를 만들고(1923. 9) 나아가 좌익인 카프(조선 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를 세우며(1925. 8) ML당(조선공산당)을 만든(1926. 6) 핵심(중앙위원)이면서 문예평론가, 계몽·독립운동가(1993. 8. 15에 건국훈장 애국장 받음)로 이름 높았던-짧은 삶을 그리도 바삐 산 이었다.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아주 빨리 잊혀져간 이였기도 하다.

그의 무덤조차 있는 곳을 몰랐다가(그의 잘난 아우 팔봉 김기진이가 손수 묻었음에도)요즘에야 겨우 찾았고(1988. 9. 청주에 사는 조각가 정창훈이 애 쓴 끝에) 나아가 그에 따른 미술쪽의 눈길이 새로 돌려짐에 따라 기념사업회가 이루어져(1995. 6)무덤에 빗돌을 세우며 전집을 내고, 기념전을 열면서[1] 학술회들을 펴가고 있는 오늘날이다.

정관의 이른바 「선구자적인 활동 내용」들에 따른 살핌은 이미 여럿 있어왔으나 남아오는 실물 작품이 없다시피 한 탓으로 보다 안타까이 지내던 터에. 1955해에 들어서자마자 그의 진작(眞作)-그것도 불상(사진 2)이 소개되어 정관의 작품성을 다시 살펴보는 불을 붙이는 쏘시개가 되었다.[2]

---

1) 정관 김복진이 태어난 마을(충북 청원군 남이면 팔봉리) 뒷산(팔봉산, 291m에 무덤이 있는데,마을에서 보아 왼쪽(北)마루 바로 너머(구암리)쪽에 그의 할아버지무덤아래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지난 1995. 8. 18에 55주기를 맞아 기념사업회가 비제막식을 가졌으며 아울러 오후에는 기념전(서울, 다도화랑)과 『김복진전집』 출판회도 가졌다. 글 쓰는 이도 따라가 이를 지켜보게 되었다. 비는 그를 가지고 쓴 첫 논문(석사, 1970)주인공인 조각가 고정수가 꾸며냈다.

2) 윤범모에 의하여 알려지게 되었다. <「반세기 동안의 망각, 김복진의 발자취를 찾아서」, 『가나아트』 1·2월호(1955,가나아트사), 23～24>

더불어 이미 익히 알려진 「불상습작」 입상 <1936해의(5월) 36살 때인 선전(鮮展) 15회 입선작, 사진 1>을 비롯하여 금산사 본존 미륵불입상(1936. 8, 사진 3)과 앞서 새로 찾아진 소림원의 불입상(1936?, 사진2)에다 기록만은 분명히 남아오는 영도사(永導寺, 현 개운사(開運寺))의 대원암에 세운 「석가입상」(1936. 11) 그리고 널리 알려진 법주사 미륵불입상(1939~1936, 사진 4,5) 나아가 청주 용화사에서 만들고 잇던 불상(1940. 8초에 시작했으나 바로 8. 18에 죽음으로써 이루지 못한)들의 불상조각에 다른 자료가 뜨게되어[3] 다시 말해 김복진 그와 그의 불상조각에 대한 평가[4]-재평가가 눈길 끌게 된 것이다.[5]

여기서는 정관 김복진의 불상조각에 대하여, 그 작풍(作風)-그 틀(형식(形式))과 바탕(양식(樣式))에 따른-이 뛰어난, 이른바의 「한국적」인가 하는 쪽들을 좀 더 찬찬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Ⅱ. 작품활동

정관은 충청도 팔봉산(청주 바로 서쪽) 서쪽자락 아래 30리 안에 남의 땅 밟지않는 가멸한 집(地主), 전설적인 열두고을 군수의 아들 맏이로 태어났다. 팔뭉뵈의 이름값답게 옛부터 이름 높은 8사람 난다는 잘난 인물 가운데 이미 두사람이 된 그의 아우 팔봉 김기진과 함께, 그가 태어난 때(1901)는 일의 야욕이 치솟을대로 넘쳤고 일로전쟁(1904)에서 을사늑약(1905)을 거쳐 경술국치(1910) 맞을 때 그의 아버지는 황간군수였다.

정관은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도화(圖畵)가 뛰어나 있었다. 여느 일제하 기득권(친일) 자식들이 그렇듯-서울로 아우와 함께 올라와 배재고보에 들어갔으나(1917), 스스로 밝히듯 내내 문제아로 지내다 일본으로 날은다(1920. 6), 먼저 가있는 아우 팔봉처럼. 법률공부를 약속하고 말이다. 스무살에,

그러나 그가 또 스스로 밝혔듯 한 전람회에서 노자(老子 채색석고)상을 보자마자, 일찍이 도화에 솜씨가 좋았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한 걸음 앞장 서 보겠다는 따위의 야심이 찬데다, 마침 그 해부터 또 관립인 동경미술학교 조각과에 처음으로 선과(選科)[6] 가 생겨 외국학생을 받아준다는 특전(?) 덕에 마침내는 길을 바꿨던 것이다.[7]

---

3) 이 또한 윤범모에 의해 들춰졌고 <「마침내 찾아낸 金復鎭의 불상조각」, 『月刊美術, 6월호(1955, 중앙일보사), 94~100> 주 2),3)의 글은 다시 주 2)의 이름으로 한데 엮어 『김복진전집』(1955. 8. 청년사), 299~330에 실어 놓았다.

4) 김복진 불상조각에 대해서는 앞서, 文明大, 「金復鎭」의 彫刻世界(1)」, 『한국현대미술의 흐름』(1998. 5. 一志社),262~271과, 조은정 「百濟彫刻의 現代的 繼承」『百濟의 彫刻과 美術』 <1992. 12. 공주대학교 박물관), 500~503, 「근대조각가 김복진과 법주사의 미륵대불상」, 『법주회보』(1993. 12. 법주사) 들에서 다뤄보고 있음.

5) 여기서는 글 쓰는 이가 「잊혀진 불교조각의 아버지」,(주간불교) 412호(1995. 8. 29. 주간불교사), 11에 쓴 작품성을 조그만 예로 들 수 있겠다. 이글은 「김복진-그 신식조각가 삶의 끝자락」이란 이름으로 보냈으나 앞과 같이 신문사에서 고쳐져 버렸다.

6) 1899해에 문을 연 관립 동경미술학교는 본과(本科)와 선과(選科)로 나눠져 있었다. 선과는 외국학생들을 들이기 위한 특별반으로 중국, 한국학생들 중심이었다. 곧 식민통치정책의 수단물로 삼아 신기한, 새로운 또는 비저항, 정치적인 미술이나 하게 곧 「신미술」이란 이름 속으로 젊은이들을 빨아들이게하는 꿀물거리였다. 따라서 돈 많은 지주집에 고관댁 자식-서양화가 1호라는 고희동(1909입학, 1923졸업)들이 모두 서양화과의 선과를 다녔으며, 저마다 서울의 군수, 평양 부호에 또한 전설적인 평양 대지주이자 대갑부에 군수와 평양 대지주의 아들들이었다. 이들은 또한 법률이나 공부하러 갔다가 돌아선 이들이자, 손가락질 받는 집안과 자신을 의식하게되는 현실 속에서의 몸부림, 나아가 그에 따른 현실의 도피와 탈출, 안일,부질없음(?)…따위들의 대상물로 다가왔던 것이다. 때문에 이들은 작품다운 작품 곧 치열한 예술의식의 처절한 사명감 결여로, 10해를 넘기지도 못하고 붓을 꺾고 일상에로 꺼꾸러지는 뒷삶을 살아갔던 것이다. 김복진 또한 그런 감정 없지 않았음을 읽어낼 수가 있다. 그리고 여자로서, 1호인 나혜석 또한 수원의 군수의 딸로 동경여자미술전문학교를 나오는 같은 밟았다. 이러한 시대적, 사회적, 신분(집안)적 상황들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곧 그들의 작품형성에 있어서.

7) 이러한 내용들은 모두 그 스스로 『朝光』지에 1940. 3부터 「조각생활 20년기-스승과 지기와 내 성격을 아뢰

그리고 거기서 일의 전통조각 곧 불상조각의 대가이자 일 근대조각의 대가인 다까무라(高村光雲)와의 만남은 그의 작품에 큰 영향-불상조각도 하게 되는 점은 매우 중요시해야 할 부분이다.

졸업반(5학년, 24살)인 1924. 9에 로댕의 <이브>를 본 딴, <여인입상>을 제국전람회(제전(帝展), 6회)에 바로 내고 돌아와서(귀국) 입선 소식을 듣는다. 그의 첫 수상이자 작품이며 작가 인정이 된다.

이듬해의 <조선>미전(선전(鮮展), 4회, 1925. 5)에도 <3년전>(두상(頭像), 1923)이 3등상을, <나체습작>좌상(1925)은 입선을 하는 등 이름을 날리며 학교학생을 가르치고, 미술연구소를 차려 (1925. 10) 조각을 비롯한 제대로의 신식미술 이론과 실기를 펴트리며 미술비평과 이론(나형선 초안, 1927. 5. 등)을 함께 하면서 5회 미전에 특선(1926. 5. 나체상(女), 제전 입선(1926. 7. <입여상(立女像)>)들로 한몸에 빛을 받는다.

그러나 그것도 짧은 한 때 마침내는 조선공산당 핵심자로 잡혀 1928. 8~1934. 2와 1934. 12~1935. 2의 긴(5해 8달) 감힘 속에 그의 칼은 녹슬고 만다. 그러면서 그는 감옥 속에서 주먹밥으로 불상을 만들고 목공소에서 많은 나무불상(목불(木佛))들을 깎아대는 쪽으로 나날을 보냈다고 한다.[8] 그 동안의 삶살이에 따른 불가(佛家)적인 살핌일까. 그에 따른, 조각선생 다까무라(高村光雲)와의 끈 탓일까. 어쨌거나 풀려 나와서도 바로 미술연구소를 차리고(사직동, 1935. 3, 35살) 가르치며, 인민의 미술이어야함을[9] 외치면서 글과 작품을 쉬지 않는다. 죽을 때까지 "더 빨리 위대해지고 싶다"면서.[10]

1935해에 동상(銅像)조각인 두상(頭像)을 9점이나 만들고, 이듬해에서 죽을 때까지도 11점(1937해에도 5점)이나 되는 수를 셀 수 있는 동상 자료가 보이고 있다. 이들 동상조각 곧 청동상(靑銅像)이라는 뜻의 초상(肖像)조각은 모두 석고상으로 된 것을 도판상으로 볼 수[11] 있다. 또한 흉상보다 거의가 두상(頭像)이다.

그리고 조선미전(선전) 15회(1936, 36살) <불상습작> 입상과 함께 <노인> 흉상이 입선되고 이듬해는 <나부 裸婦> 입상이 특선을, 17회(1938. 5. 38살)에는 또 <백화 百花>와 <여인입상>이 무감사와 특선(총독상)을 받았으며 <백화>는 다시 일본 제전(帝展, 1919~1935)을 이어받은 문전(신문전(新文展), 문부성미술전람회, 1938~1944) 첫회(1937. 10)에서 입선을 하기까지 한다.[12] 이어서 마지막 출품이 되고만 18회(1939. 5.

는 편지」란 이름으로 달마다 쓴 글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 이 글은 그의 죽음으로 끝을 맺지 못하고 말았다. 『김복진전집』(1995. 8. 청년사), 205~229에 묶여서 실어 놓았다.

8) 서대문형무소에서 숱하게 깍은 목불은 그곳 직매장에서 2~3원씩에 일반인이 사갔다한다. <주2)의 윤범모 글, 28이나 『김복진전집』 304> 이들 작품이 하나라도 찾아졌으면 빈다. 반드시 누구집엔들 고이 모셔져(奉安) 받들어지고 있을텐데…

9) 선우담, <김복진 선생 화상의 한 토막>, 『김복진전집』(1995. 8. 청년사), 279. 이 글은 일찌기 『조선미술』(1957. 5.)에 실린 것으로, 1935해 여름의 얘기를 적은 것이다.

10) 죽기(1940. 8. 18) 33일 앞까지도, 자주 한 이 말을 했다고 아우는 적고 있다. 김기진, (고 김복진 반생기-일주기를 맞아 형을 생각함>, 『김복진전집』(1995. 8. 청년사), 245. 이 글은 『춘추』(1941. 9)에 이미 실렸던 것이다.

11) 『정관 김복진 55주기 기념』(1955. 8. 다도화랑) 도록 참조

12) 배우 한은진을 가지고 백화(高麗의 名儀妓)라는 이름 나타낸 <백화>는 모두 나무로 만든(木造, 6尺) 것이라고들 말하고 있으나 처음 만든 글, 조선미전에 낸 것은 흙으로 만들어 석고를 부은 곧 조소상이다. 그것은 이것을 만들고 있을 때의 기사에(동방정취가 무르녹는 <백화> 제작의 김복진씨, 조선일보. 1938. 4. 6, 『김복진전집』 345) 이를 보고 기자가 쓴, 「깍고 저미고 부치고 떼고」하면서 만들고 있다. 한 글에서 바로 알 수가 있으며, 아울러 이 때 찍었을 사진(작품을 가운데 놓고 한은진과 김복진이 있는, 기자가 취재하고 있을 때 한은진이가 들어왔다고 같은 기사에서 적고 있다)을 보아서 나무로 보이는 거죽이 아니다. 나무로 만든 것은 그리고나서 5달 뒤인 일본 문전에 낼 때 바꾼 것으로 보인다. 곧 그의 아내(허하백)의 말 "문전에 입상한 뒤에도 좀 더 고치겠다고"한 것은 나무(고칠 수 있는)로 만든 것임을 뜻하는게 아닌가(고인의 예술을 존중, 김복진씨 유작 백화를 출품-선전에 감격의

39살)에서도 <나체A>가 특선에 <나체B>는 무감사로 뽑히는 솜씨를 그치지 않고 내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보듯 잡혀 들어가기 전보다(1928, 28살, 7점) 나온 뒤부터가(1935, 35살) 26점이나 되는 훨씬 많은 양이다. 여기다가 불상조각 8점을 더하면 41점이나 헤아리는 작품이 만들어졌다. 형무소에서 수없이 만들었다는(5해 8달 동안) 목불까지 한다면 또 얼마나 될런지….

Ⅲ. 불상작품

정관이 형무소에 있을 때부터서야(1928. 8~1934. 2, 1934. 12~1935. 20의 다섯해 여덟달이란 긴) 비로소 불상을 새겼다고 앞서 말했다. 물론 나와서도 신식(순수? 일반?) 조각을 주로(훨씬 많이)했음도 살펴보았고.

정관의 불상조각은 오늘날 형무소에서 만든 목불을 빼고서 6점이 알려졌다. 아니 8점이라 할 수 있겠다.[13]

살펴보면 먼저, <불상습작>(1936. 36살, 조선미전 입선, 사진 1)이라는 입상을 들게 된다.

그런데, 금산사 미륵전 본존 미륵불입상(사진3)과 소림원의 미륵불입상(사진2) 나아가, 법주사 미륵불입상(사진 4)의 넷이 모두 그가 만든 불상이고 또 보다시피 똑같은 틀(형식(形式))임을 한눈에 알 수가 있다. 또한 모두 미륵불입상이고,

금산사 미륵불은[14] 1935. 12에 만들기 시작하여 9달이 걸린 이듬해 1936. 9. 3에 끝을 낸다.[15] 그리고 <불상습작>은 1936. 5에 출품한 것이고 소림원 미륵불입상은 금산사 미륵불의 틀(모형) 곧, 마케트(축소생(縮小生))를 가져온(1940년대) 것이라 한다.[16] 여기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것은 이렇다. 바로 그 틀(형식)이 꼭 같고 때도 같음은, 늦어도 1935. 12. 안에 서울에서[17] 그 바탕틀(흙에 의한 석고틀)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금산사 미륵불입상을 만들어 가고 있을 때 그 바탕으로 썼던 마케트(하나)를 <불상습작>이란 이름으로 15회 조선미전에 내어 입선을 받는다. 그 마케트는 나중에 다시 금산사를 거쳐, 본존불이 다 이뤄지고 난 뒤에는 이웃 공주 소림원에서 모셔가게

화제, 매일신보. 1941. 6. 3, 『김복진전집』400) 제자 이국전이가 말한 목조상과 조카 김복희 나무토막을 깍아…만든 상이 모두 문전 때의 작품인 것이다.(이국전, <조각가 정관 김복진선생>, 『조선미술』(1957. 5), 김복희, 『아버지 팔봉 김기진과 나의 신앙』(1995. 정우사)과 『김복진전집』 286, 265), 그리고 20회 조선미전(1941. 5)에 다시 또 특별전시한(고인을 기념하며) 것도 목조상이 된다.

13) 아우 김기진의 글에 60여척 크기의 불상이 있다한 것이 새로운 그 하나가 되겠다. 주10)의 글 243. 이것이 법주사 미륵부처로 보기에는 벌써 75척으로 바뀐 훨씬 뒤이기 때문에 맞질 않다하겠다. 또 하나는 조선미술원낙성기념 소품전에 낸(1937. 4) <불상>이 있다.(윤희순, <예지의 빛-조선미술원낙성기념 소품전으로 보고>, <1937. 4. 7. 매일신보), 『김복진 전집』, 389)

14) 미륵불은 처음에 진표(眞表)율사에 의한 청동불이 만들어졌으며(764), 그 뒤로 다시 만들어 세웠음이 뜰 곧, 대적 광전 앞에 연화자리(石蓮花座, 높이 1.67m, 10세기초)가 놓여있음에서 알 수 있고 또 다시, 오늘의 자리에다 미륵전을 짓고 소조로 미륵3존입상을 세웠으나(1635) 1934. 3에 본존불이 타 버리자 이를 김복진이 만들게 된 것이다.

15) 주 3)의 글과 책, 95와 316, 318.

16) 주 2)의 글과 주 3)의 책, 32, 314.

17) 『김복진 전집』,395(법주사 미륵대불, 대작 춘향과 미륵-신춘미술계 낭화 양제, 조선일보. 1939. 1. 10의 기사)

되는 끈(인연)으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아니면, 위에서 마케트 하나라고 슬쩍 비쳤다시피 출품작과 소림원으로 간 마케트는 하나가 아니고 둘인지도 모른다. 출품작의 사진(1) 자료가 하도 깨끗(분명)하지 못해서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느낌상으로나 극히 부분적으로 다른 듯도 하다. 곧, <불상습작>의 얼굴이 보다 덜 통통하고 온화해 보이는 것 같으며, 밑으로 물결치는 소매자락도 덜 굽이치는 것 같고 젖가슴 살도 덜 오른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 금산사 본존을 위해 비슷한 마케트를 둘이나 만들어 본 것일 수 있다. 그래서 그 하나를 나중에 출품하게 되었고.

그러나 소림원 불상(사진 2)은 금산사 본존과 똑같다. 다만 크기에서 오는(12.8㎝→11.82cm) 차이에서 변화시킨 것이 있을 뿐이다. (옷주름을 보다 정리시켰다든지 아니면 손에 쥔 보주끌을 바꿨거나, 그 손목을 살짝만 안으로 틀었다거나, 연화자리 윗꽃잎 속에 꽃잎맥을 넣은 따위나 허리를 좀 더 굵게 했다든지….)

나아가 영도사의 곧 안암동 대원암에 만들어 모신 석가입상(도금석고, 높이 3.3m)도 이어서 같은 때(1936. 11)가 되는데, 실물이 찾아졌지 않지만 이 또한 그 틀(형식)은 금산사본존상의 바탕과 다를 바 없을 것이라 여겨진다. 곧 손(향우수(向右手))에 든 보주만 없애고 더 내리면 되니까. 바로 법주사 불상(사진 4) 같으면 석가의 손(수인(手印))이 되는 통인(通印) 것이다. 뿐만 아니라 조선미술원낙성기념 소품전에 이어서 낸<불상>(1937. 4) 또한 같은 틀이 아닌가 미뤄 짐작해 본다.

보다시피 법주사의 처음 불상(80척?, 사진 4)도 그 틀은 때가 제법 지났음에도(1939. 3. 13. 기공식) 앞서의 상들과 그대로 이다시피 같다. 외손(향우(向右))이 좀 더 내려진 듯하고 보주가 없다는 것 빼고는 말이다. 이 미륵입상 또한 그 마케트는 아무리 늦어도 1937해 초의 계약에서 이미 1938해말 또는 1939. 1초 안으로 마무리되었다고 봐야 한다.[18] 이 상은 이듬해인 1940. 10에 끝난다고 했으나 그 두달 앞에 정관이 죽음으로써(8. 18) 다른 이들의 손을 거치게 되어 보다시피 좀 다르게(사진 5) 바뀌어졌다.[19]

더불어 청주 용화사의 미륵불입상도 법주사 부처와 함께 만들어 가던 것이어서[20] 그 틀을 알아내기란 그리 어렵지 않겠다. 이 용화사 부처상 또한 법주사 불상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란 짐작은 여태까지 드러난 살핌에서 알 수 있는 셈이다. 바로 법주사 부처의 축소판(3척 높이이므로)으로 말이다. 뿐만 아니라 소림원 불상이 법주사 대불의 모형으로 용화사에서 모셔온 것이라는, 놀라운(?) 복잡한 얘기도 있어오고 있어서 더욱 그렇다.

이렇게 살펴본 정관의 불상조각은 그 시작과 틀(형식)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한 형식에 의한 작품 경향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어서, 이에 따른 작풍(作風) 곧 틀(형식)과 그 바탕(양식)을 알아보자.

---

18) 이 부처상 세우는데 따른 자세한 기사가 조선일보 1939. 1. 10에 나왔기 때문이다(『김복진 전집』,395)

19) 이 상은 다시 녹슬고 낡았다(콘크리트로 만들어서)고 둘러대어 1987. 4에 허물어 같은 틀에 따른 청동불로 세웠으나(1990. 4, 총높이 108척, 몸채 80척, 사진 6) 상호는 더욱 떨어졌다. 여기서 그 마케트(사진 7)과도 또한 비교가 되어 눈길을 끈다.

20) 그의 아내(허하백)에 따르면 1937해초에(동경에서 나오는 길로) "용화사 불상, 속리산 대불을 조성할 계약을 해놓고"있다. <조각실에서 암루(暗淚), 『삼천리』(1940. 11)>과 『김복진 전집』, 236.

Ⅳ. 불상작품

1.틀(형식)

바로 앞장에서 살펴본 정관 김복진의 불상조각에 따른 틀의 특징을 하나씩 짚어보면 먼저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이, 넓게 터지고 살점이 많이 오른 가슴이다. 소림원의 불상에서 보다시피 불룩히 쪄 내린 가슴과 가로지르는 살주름은 우리 전통불상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다. 이를 이미 "일본적인 특징이 약간 엿보이"는 것으로 짚어낸,[21] 뚜렷한 특징이다(사진 8,9). 금산사 본존불도 뚜렷하며 <불상습작>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불상습작에서는 사진상태가 나빠서 법주사 미륵불(사진 4)과 더불어 조금은 덜 불룩한 듯이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이렇듯 가슴이 깊이 드러나거나 젖무덤이 살쪄 내린 부처는 없다. 가슴에 8세기후기로 넘어가면서 크게 드러나도 내의(승각기)로 가리거나 하는 것이다.

둘째로 옷주름이다. 곧 겨드랑이 밑 가슴께에서 삐져 나와 크게 접어지는 것이나(사진 8~10) 더불어 손목 밑으로 길게 치렁치렁 늘어지며 물결(파도)치는 주름(사진 8~12) 그리고 옷깃과 치마(군의)자락의 접쳐내리는 물결주름(사진 8, 13) 모두 보다시피 일본풍인 것이다. 이렇게 접히는 주름은 일본의 근대조각에 그대로 응용되고 있다. 하시모토(橋本平八)의 <어린이상>, 1920년대). 뿐만 아니라 겉옷(대의) 끝자락 곧 무릎 밑쪽을 덮어내리는 끝자락의 특징적인 구불구불함도(사진 10)도 마찬가지이다. 나아가 무릎 위 허벅지를 길게 비우며(타원꼴로)사타구니를 타고도는 단출, 깔끔한 선 또한 우리에겐, 바로 일본 목불에 그대로 보이는 특징(사진 8, 9) 아닌가.

셋째로 들 수 있는 것은 상호 곧 얼굴이다. 하관이 빠지고 빠르며 각지고 처진 (윗)입술의 큼이나 날이 선 작은 코들에서 오는 딱딱함(사진 8~10)도 우리 틀에 보이지 않는 거다.

넷째는 그의 선생(다까무라(高村光雲))과 일본에서 조각을 배웠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본 불상 조각에 눈을 돌렸다는 사실이다. 뒤에 가서 바탕(양식)을 다룰 때 말하겠지만 정관의 선생이 이름난 전통조각가이자 불상조각가였었고 일본적인 신식조각을 그곳에서 익혔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는 불상을 만들기 위하여-"동양에 희유한 예술품을 남기려고", "미증유의 예술품을 남긴"다고 두번이나 일본을 갔다온다.[22] 첫번은 1936해 초겨울에 건너가(동경) 1937해초에 돌아온다. 떠나기 앞서 영도사 대원암 석가입상을, 돌아오자마자는 용화사와 법주사 미륵불 조성 계약을 한다. 두번째는 용화사와 법주사 부처가 한창 만들어지고 있던 1940. 7초에 다시 건너가 7. 18에 돌아왔으나 바로 딸이 죽으매(7. 22) 그만 작품도 하는 둥 마는 둥 하다 그마저 곧바로 이 길로 마흔 나이에 죽고(8. 18) 만다.

이처럼 그는 그의 선생과 유학동안, 그리고 두번의 도인들에서 일본 불상조각의 영향을 추려낼 수 있고 또 살펴보았다시피 일본풍이 작품에 드러나 있는 것이다. 아다시피 일본의 불상은 쉽게 가까이 할 수 있고 더구나 백봉시대(645~710)이래 평안(794~1185), 겸창시대(1185~1336)의 불상이 모두 위에 든 일본풍 특징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무릎쪽을 덮는 큰옷(대의) 끝자락의 구불구불함들은 그 유행이 물론 남송(12세기), 원대(13세기)를 거쳐 우리 고려(高麗)불화(아미타내영도따위)에 나타나고 일본에 건너가는 것이긴 하지만 정관이 이를 알 수 있는 당시 상황은 아니였다.

---

21) 주 4)의 문명대 글, 269.
22) 주 20)의 책, 236-239.

정관이 비록 일찍부터 향토성을 말하고(일본적인 것이지만) 고유섭의 글을 가까이하며 석굴암을 가고, 우리 불상을 가져다 두며, 제자들에게 우리 고전연구를 힘써 닦으라면서 고찰과 불상들을 함께 찾아보고 했지만[23] 첫물에 배인 몸(조각 자체의)의 무의식성을 떨쳐버리긴 쉽지 않는 것이다. 물론 수인(手印)같은데서도 신식(조각)풍과 일본풍이 드러나나, 연화대의 꽃잎이나 소림원 불상의 입술 또는 질감면들에서 우리적인게 아주 없는 것도 아니지만.

2. 바탕(양식(樣式))

이제까지 살펴본 정관의 불상조각의 틀(형식)을 통하여 그가 내보이는 양식을 함께 보자. 윤희순은 〈불상습작〉(1936)보다 오히려 함께 입선한 〈노인〉을 더 무애(無碍)하다고 하였다.[24] 모두가 구본웅이 말한 로댕의 인상파적, 사실주의의 일반 인체조소(석고)상 그것도 두상(또는 흉상)을 출품하는 때 종교조각-불상을 떳떳이 내놓았다는 것을 무엇보다 높이 사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그가 일찍이 말한, 그것도 일본서 돌아온 이듬해(1925, 25살) 조선일보에 실린 4회 조선미전 인상기에서 자기 작품〈나체습작〉을 두고 말한 「향토성」에다 굳이 갔다댈 수 있을까.[25]

소림원 미륵불입상(사진 2)에 대해서는 "균형과 상호가 좋으며 옷주름도 특이하게 잘 표현되었다." "몸매가 늘씬하며 당당하다. 흘러내린 소매의 주름은 마치 비단 옷처럼 리드미칼하게 흘러내려 창의성이 엿보인다.[26] 그리고 "약간 둔중한 감 없지않은 것은 상호(얼굴)표정 탓이 아닌가. 그러나 옆모습은 매혹적인 만큼 날씬, 유려하다[27]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살 처진 큰 가슴 탓으로 짧고 굵게 보이는 허리에 오히려 번잡하다 할 일본풍의 옷주름 탓으로 부처다운 단아한 맛이 없다. 더구나 하관이 빨라지고 부은 듯한 얼굴은 자비롭다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금산사 본존불은 "당당한 체구에 유연한 선의 흐름, 유려한 세부 처리, 옷주름의 굴곡진 선 등에서 범상치 않은 작가의 세련된 안목이 보이며 하체의 옷주름 선들은 현대적 묘사력의 솜씨여서 조선시대 불상과 차별상을 갖게 하며 오히려 신라시대 황금기시절의 불교조각과 호흡이 맞기도 하는"[28] 작풍이자 "원만한 상호에 약간 4각형적인 얼굴이 조선시대 말기 불상의 형식을 그대로 보이고 있는 점이 돋보인다. 일제시대임에도 우리의 조형 어휘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당시 일본적인 경향이 널리 유포되었을 터인데 김복진은 이러한 당시 유행을 따르지 않고 조선의 조각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옷주름은 지그재그식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표면을 의도적으로 거칠게하여 마띠에르가 살아 있는 불두와 옷주름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서양조각을 배운 그가 이미 전통의 범주에 들어버린 불상조각에서도 작가적 특성을 마음껏 발휘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의 손에 의해 전통 조각인 불상을 새로운 조형언어로 탄생한 것이다."[29]라 하고 있어 놀랍다.

이 금산사 본존불 또한 옷주름, 가슴, 얼굴, 몸매 그리고 상호(얼굴) 따위에서 그대로 일본풍(겸창시대의)이 보이고 굳어있는 덩이(괴량)감만 내보일 뿐이다. 더구나 정관은 용화사 불상과 더불어, 두번이나 이 불상을 더 잘(?) 만들기 위해 도일한 것은 앞에서

23) 『김복진 전집』,227, 275, 286, 342.
24) 위 책, 386.
25) 위 책, 77.
26) 주 2)의 글, 33, 위 책, 314
27) 주 3)의 글, 99, 『김복진 전집』, 320.
28) 주 2), 3)의 글, 34, 97, 『김복진 전집』318~319.
29) 주 4)의 조은정 글(백제 조각의 현대적 계승), 502~503.

이미 밝힌 바다.

법주사 미륵상에 대해서는 정관의 작풍이 많이 없어진 1963에 완성된 것으로(사진 5) 애길 올리고 있어 좀 그렇다. 하지만 옷주름은 정관이 만들다만 것과(사진 4) 똑같은 일본풍 그대로다. 미완성작에다 더욱이 아직 다듬지 않은 콘크리트 거죽이어서 매우 거칠어 얘기하기가 머뭇거려지지만, 현 상태로서는 막대같이 너무 꼿꼿하고 얼굴도 굳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되려 금산사 부처보다 못해졌다. 앞서 이른 것처럼 동양에 희유한, 미증유의 예술품을 남기려고 너무 욕심을 부리며, 일본을 두번이나 갔다온 탓일까. 스스로도 내세웠다시피 "이번은 체격이 건전한 미륵을 만들려는데 우리의 신라조각에 가까운 것이 될 것입니다."[30] 한 포부는 높이 살만 하지만.

이제까지 정관의 불상조각을 두고 바탕(양식)을 마무리한다면, 우리의 옛 것을 제대로 잇지도 그렇다고 신식조각가다운 창의성을 마음껏 내보였다 할 수도 없겠다. 「일본 로댕풍의 사실-인상주의」다시 말해 일본식 신식조각을 배우고 익혀 몸에 밴 그의 작풍은 당시의 신식(습작) 인체조각을 벗어나지 못했다. 더구나 첫 공모전 출품작이 로댕의 〈이브〉를 본 딴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입선되었다고 서울이 시끄러웠을 실정이었음에랴. 이는 이른바의 서양화쪽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우리 땅에 일본불상도 들어와 세워지듯(박문사(博文寺)) 정관이 만든 불상 또한 일본풍이 강했음을 살펴보았다. 정관을 비롯한 그때의 예술가들이 외치던 「향토성」이니「향토색」이니 하는 것도 알고 보면 일본서 노래하던 것이다.

여기 좋은 보기가 있다. 조선미전(17회, 1938)에 그의 〈백화 百花〉와 〈여인입상〉이 무감사와 특선(총독상)으로 입상했다. 안석주의 작품평이 이렇다.[31] "〈여인입상〉은 육체위에 향토색을 다분히 드러냈다…. 로댕의 작품도 역시 그러하다. 〈백화〉는 조금 결함이 있는 작품이다. 그 어깨 그 팔의…"식이다. 배우 한은진까지 써가며 조선여인을 그려 낸 〈백화〉였던 것인데.

정관의 불상조각은 선이 부처에 맞지 않게 번거롭고 부피감도 의젓하기 못하다. 딱딱하게 굳어 있고(정적(靜的)) 무표정하다. 드러난 작품 모두가 같은 형식임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러면서도 불사(佛師, 영도사)로 양공(良工, 금산사)으로, 거장(법주사)으로 이름 올랐다. 그저 최초 신식조각가라는 이름값 때문인가.

Ⅴ. 간추림

우리 나라 첫 신식조각가인 정관 김복진은 좌익으로 감옥살이 뒤부터 불상조각을 남겼는데 8점을 헤아리게 된다. 이 가운데 도판으로든 작풍을 살필 수 있는 게 4점이다. 특히 지난해 에 들어서자마자 알려진 소림원의 미륵불입상(사진 2) 탓으로 잊혀졌던 정관에 대한 작품세계 더욱이 불상조각에 따른 눈길이 쏟아지고, 기념사업회가 서는 등 첫 조각가를 다시 바라보고 있다.

여기서는 이미 살펴본 정관의 불상조각에 따른 마무리를 해보면 먼저 틀(형식)에 있어서,

①가슴이 넓게 파이고 가슴살이 불룩하니 쪄내린 것은 우리 전통불상에서 보이지 않

30) 주 17)의 글.

31) 안석주, 〈백화의 결함-선전특선작품평〉, 『삼천리』(1938, 8), 『김복진 전집』392~393.

는 것이다.

②옷주름 또한 물결치듯 접치며 치렁한 소매나 겨드랑이께로 길게 나타남도 볼 수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무릎을 덮는 옷자락 끝의 구불구불함도 일본풍을 집어넣은 것이다.

③얼굴(상호(相好))의 하관이 빠르고 빠지며 날이 선 작은 코에서도 한국 전통을 엿볼 수 없다. 이러한 특징들은 모두 일본 평안, 겸창시대 불상에 보이는 것이어서 정관이 새로운(?) 요소의 것으로(비조선적인) 활용한-일본에서 공부했고 선생도 일본 불상 대가며 그도 영도사와 용호사, 법주사 불상 조성 때 도일(2번이나) 것으로 보아 짐작가는 것이다.

다음에 바탕(양식)에 있어서는,

①부피감 곧 몸집이 의젓하지 못하고,

②구불구불하고 접혀지는 치렁치렁한 선이어서 부처에 맞지 않는 번거로움이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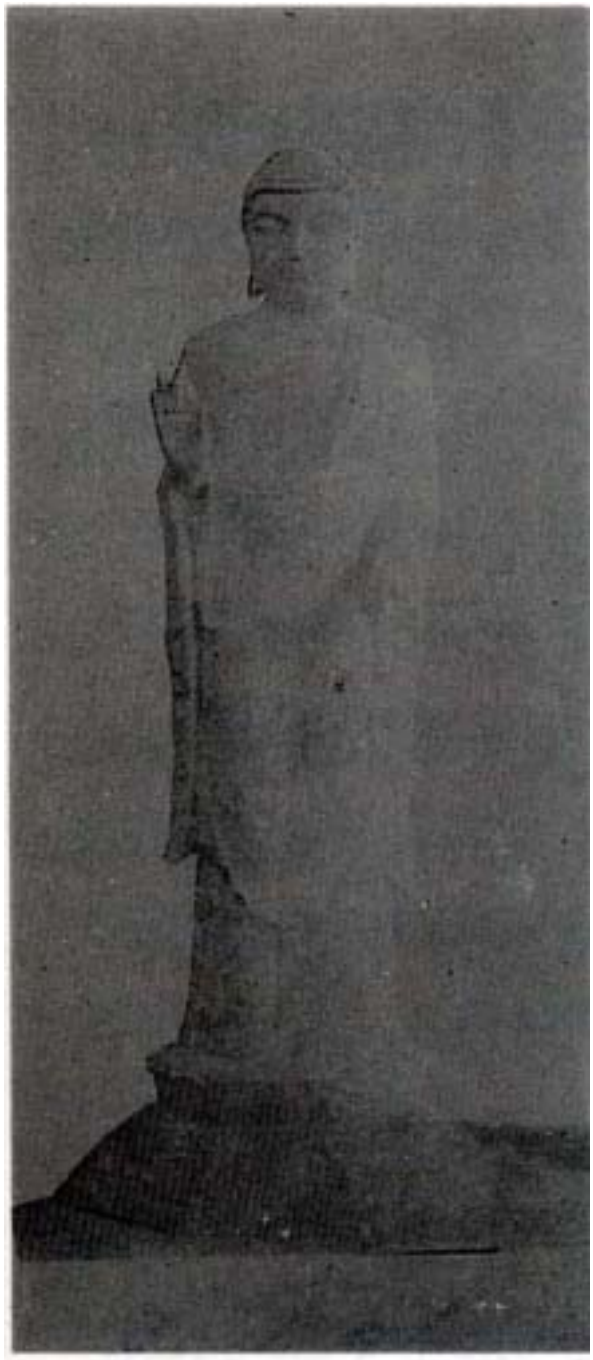
③몸매(자세)가 딱딱하게 굳어진 채 서 있다. 얼굴빛(표정)도 무겁고 차갑다.

불상의 바탕이 이러한 느낌 나는 것은 정관이 이른바 순수인체조각가인 탓일까. 어쨌거나 우리 전통의 넉넉한 오지랖과 따뜻한 핏줄을 살렸다고 할 순 없다. 일반작품 속에 불상작품을 출품하는 높은 뜻만큼은 기려야 할 것이지만.

이러한 뜻에서 우리는 더 지켜보아도 줄 수 있는 정관이 너무 일찍 죽었음을 안타까이 여겨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를 따르던 제자도 이국전, 박승구, 구본웅, 윤효중을 비롯해 적지 않지만 불상조각을 한 이가 없다. 다만 영향을 받았다는 저 뒤의 권진규(1922~1973)을 들 수가 있을까.

끝으로, 그의 아내(허하백)는 정관의 무덤 빗돌에 새겨주고자 한 “세 구절”은 뭘까. 아내의 글을 찬찬히 읽어보면[32] 그가 자주 써왔으며 몸소 행하였던 것이 호인호사호산수(好人好事好山水)임을 바로 알 수 있는 것이다.

32) 주 20)의 글이 실린 『김복진 전집』, 240.



도 1. 김복진, 〈불상습작〉
고, 1935말경)
조선미전(鮮展) 15
입선(1936. 5)

도 1. 김복진, 〈불상습작〉 (석고, 1935말경)조선미전(선전(鮮展))15회 입선(1936. 5)

· 김복진, 미륵불입상(
금석고, 1935말경)
공주 소림원, 높이 12

도 2.김복진, 미륵불입상(도금석고, 1935말경)공주 소림원, 높이 128m

도 3. 김복진, 미륵불입상(도금소조, 1935. 12~1936.9)금산사 미륵전 본존, 높이 11.8m(39척)

도 4. 김복진, 미륵불
크리트, 1939)
법주사 본존, 높이
(75척)

도 4. 김복진, 미륵불입상(콘크리트, 1939) 법주사 본존, 높이 22.7m(75척)

5. 미륵불입상(콘크리트
1963)
법주사 본존, 높이 24
(80척)

도 5. 미륵불입상(콘크리트, 1963) 법주사 본존, 높이 24.2m(80척)

도 6.청동미륵불입상(1990) 법주사 본존, 높이 32.7m(108척)

도 7. 금동미륵불입상(19
법주사 본존 모형(마

도 7. 금동미륵불입상(1987)법주사본존 모형(마케트)

도 8. 2의 옆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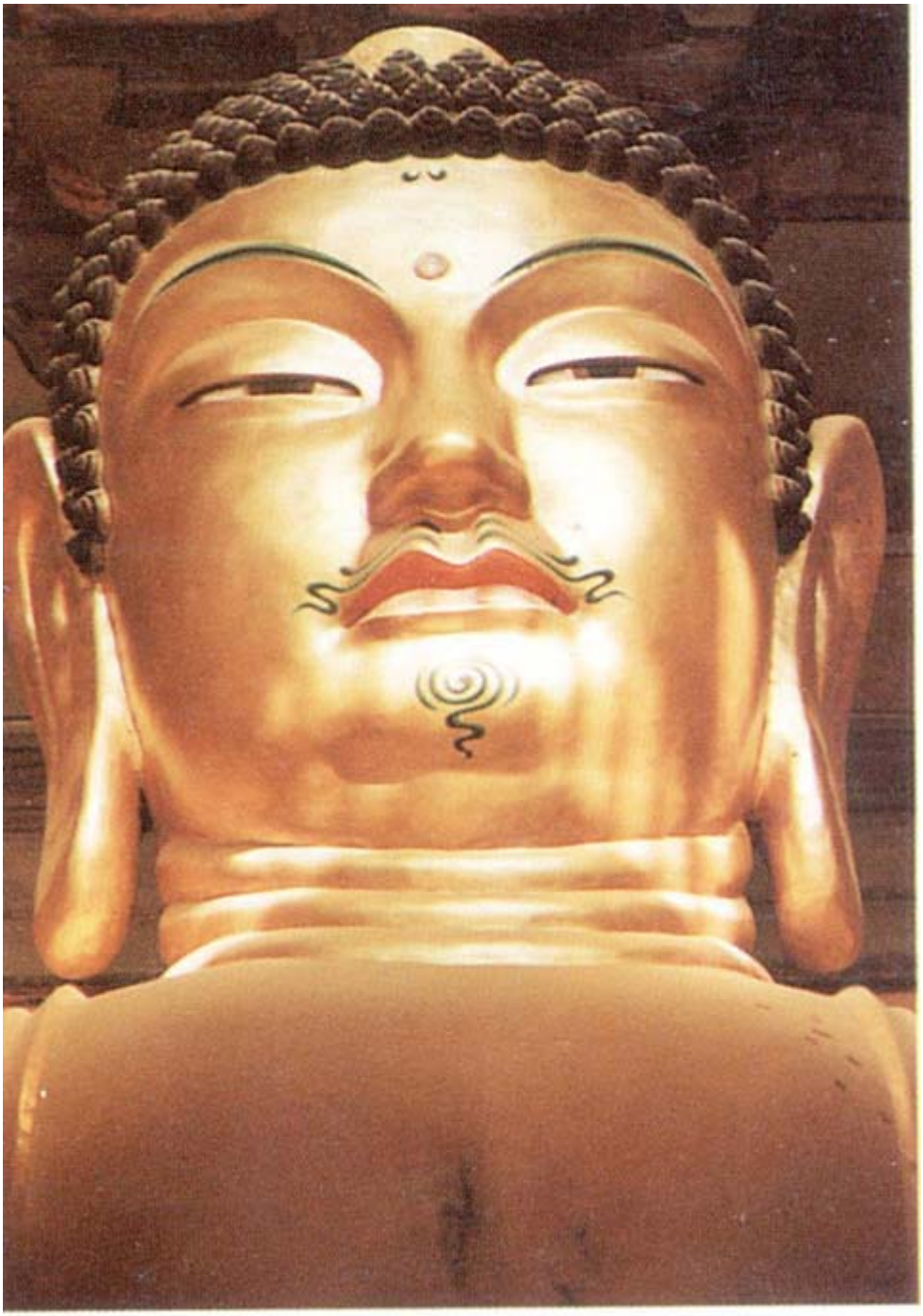
도 8. 2의 옆모습

도 9. 3의 비스듬한 모습

도 9. 3의 비스듬한 모습

도 10. 2의 윗몸

도 10. 2의 윗몸



도 11. 3의 얼굴

도 11. 3의 얼굴

도 12. 약사목불입상
대, 9세기)
일본 나라 원
이 164.8cm

도 12. 약사목불입상(평안시대, 9세기) 일본 나라 원흥사, 높이 164.8㎝

도 13. 목불입상(겸창시대, 1264) 일본 산구 이존원, 높이 98.7㎝

불입상(겸창시대,
99)
본 경도 봉정사, 높
50.5cm

도 14. 목불입상(겸창시대, 1199) 일본 경도 봉정사, 높이 50.5㎝

15. 목불입상(겸창시
세기)
일본 경도 견영
이 98.2cm

도 15. 목불입상(겸창시대, 13세기) 일본 경도 견영원, 높이 98.2㎝

도 16.청동불입상(백봉시대, 7-8세기) 일본 화가산 친왕원 높이 43.0㎝

도 17. 금동불의자상(백봉시대, 7세기)
일본 동경 심대사, 높이 60.6cm

도 17. 금동불의자상(백봉시대, 7세기) 일본 동경 심대사, 높이 60.6㎝